

## 미·중관계, 물리적 충돌 및 화해 가능성은?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중 관계는** 역사적으로 대국 간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해 왔다. 중국에서 청(淸)왕조의 무능과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은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국가를 건설하겠다는 혁명과 정당(政黨) 건설로 시작해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으로 나타났고, 국공내전은 완전한 통일이 아닌 중국대륙 전체와 부속 도서를 차지한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과 타이완 본토와 부속 도서 일대의 중화민국의 국민당으로 나뉘어 졌다. 그러나 중국의 1971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과 중화민국의 탈퇴 그리고 1979년 미·중수교 및 1992년 한·중수교로 중국은 우리에게 중화인민공화국과 타이완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미·중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을 포함한 국공내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에서도 그 연결의 끈이 유지되었는데, 1979년 미·중수교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의미한 시작으로 1990년 소련의 해체로까지 이어진다. 소련의 해체는 우리에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변화하며 자본주의 진영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를 갖게했으나, 중국 공산당은 소련의 해체를 반면교사(反面教師) 하여 중국 경제력과 국력 상승을 통해 공산당의 통치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본문에서는 역사적 의미의 미·중관계를 기초로 현재 미·중관계를 살펴보고, 미·중 간 현재의 대립이나 화해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즉, 미·중 마찰이 ‘치킨게임’인지 아니면 화해를 통한 관계 변화 과정인지를 한반도 문제와 연계하여 연구자의 개인적 시각으로 구성해 본 것이다.

목 차

- I. 역사적 흐름으로 본 미·중 관계
- II. 한국전쟁 전후의 미·중 관계와 한반도
- III. 중국의 경제발전과 미·중 관계
- IV. 미·중 마찰의 현안
- V. 미·중 관계의 미래는?

*대일 전쟁에서 미국은 중국 내 일본의 정보를 얻기 위해 멸공(滅共)에 관심이 있는 장강(양자강) 이남 세력인 국민당 장제스(蔣介石)와 더불어 공산당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함*

I. 역사적 흐름으로 본 미·중관계

- ◆ 근대사에서 미·중관계는 제1차 아편전쟁(1839~1942)에서 영국이 승리하고 제2차 아편전쟁(1856~1860)이 진행되던 시기인 1858년 ‘미·중 친조약(望廈條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1775년 독립을 선언한 신생국인 미국은 장기적 관점으로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중국과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가고자 했다고 함.
- ◆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교류는 일본의 침략으로 1941년 미국이 참전한 태평양전쟁에서 1937년 전면적 항일전쟁을 선포한 중국 국민당 및 공산당과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는 중국에서 군벌,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과정이 1936년 ‘서안사변’을 통해 국공합작으로 이어졌고, 미국은 일본에 대적하기 위해 국민당 및 공산당과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임.
- ◆ 미국은 중국 내 일본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소련과의 관계를 기초로 하지만 항일(抗日)보다는 멸공(滅共)에 관심이 있는 장강(양자강) 이남 세력인 국민당 장제스(蔣介石)와 더불어 공산당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함.
  - ※ 당시, 당시 북방으로 근거지를 옮긴 공산당의 경우 동북지역과 해안지역의 일본 군사정보 확보에 뛰어났기에 미국은 공산당과의 협력도 중요했다고 함.
  - ※ 1936년에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서북 산시성(陝西省) 공산당 본거지 옌안지구(延安地區)에 들어가 마오쩌둥(毛澤東)을 회견하고 저술한 《중국의 붉은 별》로 유명한 미국의 언론인 에드가 스노우(Edgar Parks Snow)의 경우,<sup>1)</sup> 이는 공산당이 자신들의 입장을 외부에 알리려고 일부러 비밀리 초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에 있어서도 미국과의 관계는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봄.
- ◆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을 벌이던 1946~1949년에는 미국은 국민당과 미국의 관계에 따라 국민당을 지지하였는데, 이는 사회주의 소련의 지원으로 중국이 사회주의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고 함. 이러한 전략과 연대는 당시 공산당과 대립하던 국민당 지도자 장제스의 부인 송메이링(宋美齡)의 대미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함.
- ◆ 1949년 10월 중국 공산당이 중국대륙 대부분을 장악하고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한 시기, 국민당은 패전하여 중화민국 수도를 타이

베이(臺北)로 이전하면서 미국은 냉전질서에 따라 중화민국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다가, 1979년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며 타이완 중화민국과 단교하게 됨. 그러나 중화민국과의 전통·우호적 관계와 타이완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여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으로<sup>2)</sup> 타이완 국민당 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함.

※ 즉, 미국은 1860년대 중국에 진출하여 지금까지 청(淸)조정, 군벌, 국민당, 공산당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 71년이라는 시점에서 보아도 미국은 전반기 30년은 국민당 중화민국 정부와 유대관계를 유지했는데, 이 중 미·중국교 정상화를 시도하던 9년(1971~1979년)을 고려하면 정작 사회주의 중국과 냉전적 대립한 시기는 단지 22년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리고 미·중 수교 후 시점(1971년 교섭을 시작하여 1979년 국교 정상화)으로 봐도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교 정상화와 관련 교류는 41년이 되었고, 이 중 미·중 간 협력한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상대적으로 대립한 시간은 짧다고 할 수 있음.<sup>3)</sup>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1년 시점에서 미국은 전반기 30년은 국민당 중화민국 정부와 유대관계를 유지했는데, 이 중 미·중국교 정상화를 시도하던 9년(1971~1979년)을 고려하면 정작 중국과 냉전적 대립한 시기는 단지 22년임*

※미·중이 물리적으로 본격 대립한 것은 한국전쟁이 유일할 것이고, 간접적으로 대립한 것은 타이완 진먼다오(金門島) 전투와 베트남 전쟁이라 할 수 있을 것임. 이외에 미국과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대립했던 사례는 최근까지도 부지기수인데, 이는 양국이 대량의 물리적 충돌보다는 간접적 대립이나 국지적 충돌을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001년 남중국해에서 일어났던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의 충돌 사건이나 군함이나 상선 및 어선단의 해로차단 등의 활동도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이를 다시 정리하면, 미국 정부의 대중국(청왕조, 군벌, 국민당, 공산당 및 민진당 포함) 정책을 보면 미국의 자신과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견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으로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전략으로 미국의 국익에 기초하여 대중국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즉, 국민당, 공산당과의 협력이나 타이완에서 민진당과의 협력과 홍콩 문제 및 중국 내 소수민족의 인권에 대한 입장과 정책도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즉,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인이 건설한 국가나 지역에서 당과 정치 세력을 적절히 활용하며 미국에 유리한 전략을 전개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넓은 지역에 펼쳐있는 중국인들의 국가와 정치 세력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활용하여 미국 정치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중국의 사회주의제도가  
인권이나 소수민족의 평등적  
자치 그리고 자유선거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식재산권  
보호나 정부의 과도한  
시장 관여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중 갈등의 핵심은  
중국 국력 상승이 미국의 지역  
안보나 세계정치에 도전이  
되기 때문임

한반도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와 그 구성원의 관계를 고려하여 미국에 유리한 전략을 펼친다고 볼 수 있음. 비록, 중국의 사회주의제도가 서구의 제도와 다르게 인권이나 소수민족의 평등적 자치 그리고 자유선거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식재산권 보호나 정부의 과도한 시장 관여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중 갈등의 핵심 배경은 중국의 경제적 발전과 국력 상승이 미국의 지역 안보나 세계정치에 도전이 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II. 한국전쟁 전후의 미·중 관계와 한반도

### 1. 미·중관계와 한반도

- ◆ 20세기 1950년대 중국은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토의 재건과 발전을 위해 소련과의 관계에 공을 들였고, 한국전쟁 참전의 대가로 경제발전의 지원을 받기로 했음. 그러나 스탈린 사후 중·소관계는 이념 갈등으로 시작된 균열로 경색되어 가고 중국은 독자적 경제발전을 기초로 한 발전을 추진해 갔으나 자연재해와 경제정책의 실패가 정치적 혼란으로 가중되고 이는 결국 문화대혁명으로 이어짐.
- ◆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진행되던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을 보면 미국과 중국은 한국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로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면전을 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미·중은 서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며 상대방에게 전면전에 대한 우려를 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함. 이는 미·중 양국은 베트남 전쟁이 대리전, 국지전 양상으로 끝내길 바랐기 때문이라 함.
- ◆ 또한, 미·소 냉전시기에 중·소관계의 악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케하였고, 소련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소 관계의 경색을 누그러뜨리려 시도했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 미·소 대립과 중·소 모순의 시기 중국은 적대국인 미국의 군대가 아시아에 주둔하는 것이 중국에 더 위협적인 소련과 일본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함. 즉, 중·소 냉전 시기 미국과 중국은 수교를 통해, 국가 간 이념 갈등을 뒤로하고 자국의 이익과 제3자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중 관계를 유지했다고 할 수 있음.
- ◆ 이러한 중국의 행위에 북한은 중국을 비판하면서도 오히려 중국의 손을 들어 주는데, 이는 자신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북한의 전략으로, 북한

은 미·중관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군수물자와 기술을 받고, 중국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UN군과 미군의 철수 및 UN 한국부흥통일위원회의 해산 등을 주장하기 위했던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음.

- ◆ 중국 공산당이 건국 후 참전한 국제전쟁이란 것이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중·인(인도)국경전쟁, 중·소 국경분쟁 등이 있는데, 중국의 역사와 교육에서 한국전쟁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승리한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기에,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여러 분쟁에서 미국과 연관된 부분은 한국전쟁의 ‘항미원조’ 사관으로 보는 특징이 있음.

*중국공산당은건국후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중·인(인도)국경전쟁  
중·소 국경분쟁 등을 있는데,  
중국의 역사와 교육에서 한국  
전쟁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승리한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여러 분쟁을  
한국전쟁의 ‘항미원조’ 사관으로  
보는 특징이 있음*

-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은 소련 및 북한과의 사회주의 국제 유대에 의한 것도 있지만 중국의 국경 안보에 대한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중국이 한국전쟁에서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의 참전에 건국 1년쯤에 ‘항미원조(미국에 대항하여 조선을 지원함)’이라는 기치로 ‘인민지원군(정식군대가 아닌 지원군 형태로 명명)’을 파견한 것은 중·소관계와 북·중관계를 고려한 것이라 보는데, 이러한 북·중관계는 한반도 현안에서 타이완 문제를 포함하여 미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임.

※ 이는 중국이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과 연계하여 한·미·북·중 관계에서 지금도 북한을 지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남. 이는 다시 중국의 대외정치가 국내정치 의제와 연관이 있고, 이는 중국이 미·중관계의 틀에서 한반도와 양안 그리고 동해와 남중국해를 보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음.

- ◆ 이러한 이유로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의 남북한 문제에 대해 남북 단독의 일이 아닌 한·미동맹과 연계된 현안으로 간주하고, ‘항미원조’의 한국전쟁 전후의 내용에 근거하여 그 입장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음. 즉, 중국의 한반도문제란 한반도에서 중국에 잠재적 적이 될 수 있는 세력이 쇠약해지는 것을 의미함.

※ 예를 들어, 중국이 소련(러시아)과 대립하는 때엔 중국은 아시아에 미국의 영향력이 이를 상쇄해 주기를 바라지만, 중소(러)관계가 좋을 때는 중국에 있어 미국이 더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임. 그러나 중국 국내 정치적 이슈에서 미·중관계가 강조돼야 한다면 안보적인 미군에 대한 부담보다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임. 지금과 같이 미·중관계가 나쁘고,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는 시기에는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전략을 중국에서 위위구조(圍魏救趙)라고<sup>4)</sup> 함.

*현재 미·중 대립은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일부 형세는 한국전쟁때의 북한·소련·중국의 협력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냄. 그러나 현재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서 우방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한국과 일본 및 동남아국가에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

- ◆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중국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민족주의 정서를 충동원해서라도 자국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국내외 정치의 연관성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임. 즉, 중국에게 있어 미국은 협력의 대상이지만, ‘항미원조’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경계의 대상이라는 것임. 또한, 러시아(소련)의 경우에도 잠재적 적(敵)인 상태에서 협력하는데, 이는 중국은 미국과의 협력상황과 연계하여 러시아와의 관계가 변화한다는 것임.
  - ※ 미·중 관계에서 미국에게 중국이 필요한 경우가 냉전시기 미·소 대립이 었다면, 현재 미국은 러시아, 중국을 모두 견제해야 하기에 미국은 동맹국 위주의 포위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음. 이러한 상황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일부 형세는 한국전쟁때의 북한·소련·중국의 협력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냄. 그러나 현재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서 우방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한국과 일본 및 동남아국가에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 중국은 한·미동맹과 연계된 동북아 국제 안보질서나 국내적 문제라는 타이완해협의 양안문제에 대해서는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배후 세력으로 미국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중국과의 소통을 증시하면서도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체제를 구축하며 중국을 견제하였다고 함.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전쟁 이후 중국은 국내 정치·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국제 무대로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으며, 이 시기란 1971년 국제연합 가입과 1972년 중·일수교 그리고 1978년 개혁·개방정책 수립과 1979년 미·중수교 때인 1970년대라 할 수 있음.
  - 중국은 한국전쟁과 중·소마찰을 겪으며, 국내정치에서 경제적 안정과 대외관계에서 군사력이 중요하다고 깨닫지만, 대약진운동(1958~1960년)의 실패와 이의 결과로 나타난 문화대혁명(1966~1976년)의 길로 접어들게 됨.
  - 그러나 어려운 경제 상황과는 다르게 이 문화대혁명 기간 중국은 경제 개혁과 동시에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며 외교적으로는 미·소 대립이라는 틈에서 제3세계를 등에 업고 외교력을 확장하여 1971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국제무대에 진출함.<sup>5)</sup>
  - 당시 중국은 소련과 경쟁하듯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도 공산주의 이념을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공산주의 이념의 확산과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아시아에서 동맹체제를 더욱 견고히 했다고 함. 이 시기 한·미동맹도 남북한 대립이라는 각도에서 더욱 견고해졌다고 할 수 있고, 한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 전쟁(1960~1975년)에 참전(1964~1973년)하게 됨.

- ◆ 종합적으로 미·중관계를 보면 역사적으로 이념 갈등 속에서도 견제와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한국전쟁 이후 대치하던 1955년부터 1970년까지인 15년 동안 무려 136회나 되는 대사급 회담을 개최하며 양국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자 하였다고 함. 즉, 미·중 관계는 대립과 마찰 속에서도 협상을 꾸준히 진행해온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미·중관계도 대립과 마찰 상황에 있지만, 양국이 교류나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님. 즉,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국내 정서에 맞게 양보해 줄 것을 바라고 있고, 중국도 자국의 안보와 경제이익에 손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과 타협하기를 원하는 상태임.
  -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의 의견 일치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북·미와의 의견일치와 미·중간 어느 정도 전략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때 여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반도는 남북한 관계와 미·중 관계 및 북·미 관계 3박자가 같이 돌아가야 평화와 안전 및 교류의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임. 현재 미·중의 대립과 마찰은 북한에게 목전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진영논리를 활용하게 할 것임.

## 2. 미·중 관계에서 소련(러시아) 요인

- ◆ 1900년대초 중국은 봉건제도를 탈피하고 근대국가를 건국하려는 과정에서 일본이나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했는데, 일본의 중국 점령 및 전쟁 야욕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했음.
  - 손중산(孫中山)이 장제스(蔣介石)를 러시아에 파견해 러시아식 군사 학교 설립에 도움을 받은 것이나 공산당의 창당 및 발전단계에서 소련과 협력한 것이 이를 증명함. 이에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의 미·중관계에서 국민당이나 공산당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경계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국민당의 경우에도 소련과 관련이 있는 세력에 대한 경계가 있었다고 함. 즉, 장개석의 아들 장경국이 소련에서 유학하고 부인도 소련 유학 시절 안 러시아사람이었다는 것은 당시 중국 국민당 및 공산당의 혁명에서 소련 공산주의 정부와의 관계가 밀접했음을 의미하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되는 시기에 소련에 대한 견제가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 그러나 미국이 소련과 사회주의 중국(중공)을 경계하기 위해 타이완의 중화민국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시 소련의 영향력이 동남아시아로 계속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한국·타이완(중화민국)을 위주로 미국의 방어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또한, 동남아시아

1900년대초 중국은  
봉건제도를 탈피하고  
근대국가를 건국하려는  
과정에서 일본이나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했는데,  
일본의 중국 점령 및 전쟁 야욕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했음

역의 필리핀과의 역사적 관계나 전략적 관계도 당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소련과 중국을 상당히 많이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한반도의 분단과 대립도 이와 유사한 미국의 전략과 한반도 남북한의 국내정치가 연계된 부분으로 볼 수도 있음.

*중·소갈등과 중·월(베트남) 마찰과 전쟁 그리고 문화대혁명 종식과 4인방 처벌로 이어진 덩샤오핑(鄧小平) 정부의 개혁·개방정책은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의 산업기술과 자본투자가 필요하였고, 미국은 중국을 통해 소련을 견제하며 동남아시아에서 소련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동남아의 경우, 베트남 전쟁에서 홍콩, 타이완, 괌, 한국, 일본을 전략적 후방지원지역으로 활용하며 계속 전쟁을 하던 미국이 국내 상황과 더불어 베트남에서 패전하여 철수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은 중국과 교류를 위해 꾸준히 중국 공산당과 교섭하게 됨. 즉, 당시 중·소갈등과 중·월(베트남) 마찰과 전쟁 그리고 문화대혁명 종식과 4인방 처벌로 이어진 덩샤오핑(鄧小平) 정부의 개혁·개방정책은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의 산업기술과 자본투자가 필요하였고, 미국은 중국을 통해 소련을 견제하며 동남아시아에서 소련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Ⅲ. 중국의 경제발전과 미·중관계

#### 1. 중국 경제발전과 국력 변화

◆ 중국은 1976년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연이어 4인방이 처결될 상태에서 정치 사회적 안정을 찾고 1978년부터 개혁·개방정책을 국가정책의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음. 바로, 1989년 천안문 사건으로 중국 지도부의 보수(사회주의 정치체제 강조)와 진보(경제적 발전 강조)의 대립이 있었으나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로 중국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공고히 하며 개혁·개방 정책은 계속하여 추진하는 정책으로 이어짐.

◆ 즉, 중국은 1992년 남순강화에서 2008년 북경올림픽 이후까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유지하며, 2012년 시진핑(習近平)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심화개혁(深化改革; 더 강도 높은 개혁)'과 '의법치국(依法治國; 공산당의 법인 당장, 헌법에 의한 통치)'의 토대에서 사회기강을 새로이 하는 정치체제에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함.

◆ 이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체제에서 개혁·개방을 추진했던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며, 마오쩌둥(毛澤東) 등 공산당이 건국한 사회주의 중국체제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개혁개방을 추진하며 사회에 나타난 빈부격차 및 부패 등의 문제를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바로 잡으려는 정책으로 보임. 즉, 시진핑의 '신시대'란 사회주

의 강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대를 의미하며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해 단결하고 국제사회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함.

※ 시진핑 시대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국가기초를 만든 마오쩌둥 시대와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을 부유하게 만드는 기초를 제공한 덩샤오핑 시대에 기초하여, 그 후 이러한 탄력으로 꾸준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었던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시대를 총괄하는 신시대(新時代)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국가 건설 완성이라는 것과 강하고 부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공산당원이 초심(勿忘初心, 老記使命)으로 돌아가 국가와 인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정신을 강조하는 시기임.

*시진핑 시대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국가기초를 만든 마오쩌둥 시대와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을 부유하게 만드는 기초를 제공한 덩샤오핑 시대에 기초하여, 그 후 이러한 탄력으로 꾸준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었던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시대를 총괄하는 신시대(新時代)라고 볼 수 있음*

## 2. 중국의 경제발전 결과와 미·중의 동상이몽

◆ 중국 공산당의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중국인들의 상업적 DNA와 노동력·시장·외자를 포함한 자본,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으로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함.

- 비록, 개혁·개방과 사회체제변화라는 2가지 갈등으로 나타난 1989년 ‘천안문사건’도 있었지만,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로 정리된 중국 개혁·개방정책은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정치체제와 제도로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중국 상황에 맞는 정부 주도형 경제발전을 한다는 국가자본주의(마르크스 자본론)로 발전하게 됨.

◆ 이러한 중국경제의 발전은 중국정치에서 민주, 평등, 인권 등 서구의 가치에 대한 요구도 일어나고 있지만, 이와 상응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은 사회주의국가 건설에 방점을 두고 있음. 이를 덩샤오핑 시대 1989년 ‘천안문 사건’ 진압과 1992년 ‘남순강화’로 이어진 내용을 연계해 보면, 중국은 ‘사회주의국가 건설 완성’이라는 부동의 목표 아래 국가 주도형 경제발전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중국이 추구한 것이 서구식 자본주의도 아니고 국가발전의 목표가 서구식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것을 말함. 그리고 중국정부는 현재의 정책이 건국이념에 있는 공산당의 국가건설이념에 기초한 사회주의국가라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있음. 즉, 중국을 서구식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이자 여기에 서구식 민주정치와 그와 관련된 사회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예측하는 것은 옳지 않음. 즉, 중국은 중국이라는 국가발전 상황에 맞는 사회주의국가이고 국가의 발전은 중국 특색의 시장경제를 채용하여 국내경제를 발전

시키며, 서로 다른 체제의 국가들과도 우호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것임. 이를 중국 정부는 공산당이 역사적으로 주장했던 ‘평화공존5항원칙(和平共處5項原則)’과 ‘평화적 발전(和平發展)’이나 ‘평화공존(和平共存)’이라는 술어(術語)로 표현하고 있음.

- ◆ 일반적으로 중국경제가 발전되고 개방되면 중국에서도 인권과 평등 그리고 선거와 같은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며, 중국은 이러한 문제로 정부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함. 그러나 이미 99년이 된 중국 공산당은 국가 건설 71년을 통해 공산당의 현대적 진화와 효율적 통치를 할 수 있는 정당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음. 즉, 민주와 자유 그리고 체제 변화에 대한 요구의 산발적 물결보다는 공산당의 체계적인 통치를 위한 진화와 변화가 더욱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즉, 중국의 역사를 보면, 중국의 변화는 외부에서 들어온 힘에 의한 변화보다는 내부의 힘에 의한 변화가 왕조와 지도자를 바꾸는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내부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천연재해나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현재 중국의 통제시스템으로 보면 외부에서 불어넣은 바람이나 영향력이 14억 중국인의 중요한 무리를 움직이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중화 민족주의 의식이 강한 중국인들이 외부의 세력에는 서로 힘을 뭉쳐 대결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의도가 외부세계의 의도로 일어났다고 의심하게 되면 이러한 일은 역으로 중국인들을 더욱 단결시킬 것으로 보임. 즉, 중국은 국내에 ‘태평성대’의 기초인 경제문제의 안정과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한 외부의 영향력으로 통치조직에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또한, 통치능력을 항상 진화시키는 연구를 꾸준히 하는 공산당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지난 세기 1970년대 초 양국이 전략적 목적으로 교섭하며 1979년 수교를 맺고 서로 교류를 진행하면서 본격화되었으나, 미국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를 거치며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과 트럼프 정부에서 미·중 관계가 극렬한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미·중 관계는 악화 일로로 치달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관심 대상이 되었음.

- ◆ 현재 미·중 양국의 관계에서 미국은 미국 국민을 만족시키고 트럼프(Donald Trump)의 공적으로 표현되어 대선에 도움이 되는 중국의 변화를, 중국은 시진핑의 신시대에 맞는 대외관계 건설이라는 측면에 미국이

*중화 민족주의 의식이 강한 중국인들이 외부의 세력에는 서로 힘을 뭉쳐 대결한다는 측면에서 외부세계의 의도로 국내 소요가 일어났다고 의심하게 되면 이러한 일은 역으로 중국인들을 더욱 단결시킬 것으로 보임*

협력하는 관계를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기에 양국의 대치는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꾸준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과거 미·중의 대립, 마찰과 협상을 보면 양국은 대립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 극한 충돌은 막았다고 보임. 즉, 협상과 타협이 모순과 마찰의 이익보다 크다는 판단이 있을 때 양국의 협상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sup>7)</sup>

### 3. 미·중 마찰의 각종 이슈

◆ 미·중 마찰의 핵심문제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꾸준한 경제발전을 하며 국력을 키우는 동안 중국 정치·사회제도가 민주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공산당이 더 강해지면서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체제가 미국에 위협이 되고, 지역안보 질서에 도전으로 나타난다는 것임. 이는 미국이 생각했던 중국의 국가·사회 발전 결과의 방향이 예상과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에 대한 자체 반성적 대중국 견제가 시작되는 동인이 되었다고 봄.

※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보면, 중국의 해양국가로의 확장전략은 결국 미국의 패권에 도전이 되는데, 중국 경제발전의 기본인 과학·기술을 절취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여 미국의 이익을 빼앗아가며 이를 통해 자국 국력 향상에 사용하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것임. 이러한 상태에서 중국은 민주주의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인권, 민주, 자유, 평등, 선거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공산당 독재가 실현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공헌도가 적다는 것이 미국이 보는 중국의 시각임.

◆ 이러한 의미에서 홍콩문제와 중국 내 인권문제 등을 거론하며 미국은 중국 공산당 통치의 불합리성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 통치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미국의 중국 공산당체제 약화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이 미국의 이익을 해치며, 장기적으로 미국에 큰 도전이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중국 국가발전의 기초인 과학·기술 지적재산이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경제적 발전 속도를 제어하여 중국 경제발전을 저해하여 중국의 확대 전략을 제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즉, 미국의 판단에 의하면, 중국 발전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중국 경제발전에 충격을 주기 위해 동맹국이나 미국과 우호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임. 이는 더 나가서 중국이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IT나 통신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보면  
중국의 확장전략은 결국  
미국의 패권에 도전이 되는데,  
중국 경제발전의 기본인  
과학·기술을 절취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여  
미국의 이익을 빼앗아가며  
이를 통해 자국 국력 향상에  
사용하는 국가라는 것임.  
이러한 중국의 행위는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임*

등의 첨단산업이 국제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여 비전통안보영역에서도 중국을 봉쇄하려는 전략을 펼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미·중 갈등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봉합되더라도 꾸준히 부각될 경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임. 비록, 미국은 국가정책과 민주선거 등의 과정을 거치면 일부 대외전략을 펼치겠지만, 이미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이나 경쟁에서 최악 상황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양국의 경쟁은 계속될 것임*

- ◆ 중국의 동맹국을 통한 안보와 경제적 봉쇄는 결국 미·중 무역전쟁 이상으로 중국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며, 이는 미·중 갈등이 앞으로 물리적 충돌로 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 즉, 미·중 갈등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봉합되더라도 꾸준히 부각될 양국의 경쟁으로 나타날 수 있어 보임. 비록, 미국은 민주 선거를 통한 국가정책과 대외관계의 과정을 거치면 일부 대외전략을 펼치겠지만, 이미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이나 경쟁에서 최악 상황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양국의 경쟁은 21세기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임.
  - 미·중 경쟁이 가속화 되면 지역 정치 질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역내 정치 현상에서 중국과 미국의 대립과 견제를 통한 미묘한 정치·경제의 ‘합중연행’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즉, 안보와 경제라는 측면에서 이분법이 아닌 다각화되고 복잡한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큼. 특히, 미·중 양측과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는 국가에게는 어느 정도 호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한쪽과 일방적 협력과 동맹구조에 있는 국가들은 일부 현실적 어려움이 올 수 있음. 이는 정부의 정치·경제적 균형감과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기가 올 수 있음을 의미함.

#### 4. 미·중 마찰에 있는 수 있는 변수

- ◆ 미국 정부는 금년 11월에 대선이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금년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에 대한 실적을 인민들에게 보여야 하는 상황임.<sup>8)</sup> 특히, 중국은 2021년 공산당 건립 100주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공산당 조직의 강화와 국가통치에 대한 성과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양국의 대립에서 어느 한 쪽이 먼저 꼬리를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단지, 미국과 중국은 서로 상대방의 의도와 국가정책 및 그 일정을 서로 잘 이해하고 있기에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강한 물리적 대립이 아닌 방법으로 서로의 마찰을 어느 정도 봉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즉, 미·중 마찰은 경제적인 문제와 안보적인 문제 그리고 지도자와 국가의 체면이 걸린 문제이지만, 양국 지도자가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타협도 가능하다고 보임. 또한, 생각지 않았던 미·중 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안인 제3국과의 관계나 지역이나 국제 이슈가 생길 경우에도 양국의 타협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IV. 미·중 마찰의 현안

### 1. 현재 미·중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 ◆ 현재 미·중 마찰의 근본적인 문제는 양국의 관계에 서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즉, 미국은 중국이 정치, 경제, 사회, 제도, 교육 등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구적 가치관이나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학·기술을 포함한 군사력 분야에서 미국의 지역 영향력에 도전이 되고 있다는 것임. 중국의 경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중국을 봉쇄하여 중국의 대외정치에 영향을 미치며, 미국이 주장하는 가치관으로 중국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쳐 공산당의 통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임.
- ◆ 미·중 간 대립은 동아시아에서 동북아, 동중국해, 타이완해협,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의 이익에 상충되며 지역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임. 이는 중국이 태평양 국가인 해양국가로 변화를 추구하며 타이완 통일을 위한 전략으로 그 국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는 것임. 이외에 서남아시아나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도 미·중 갈등은 격화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미국과 관계가 소원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외관계를 확대하는 성동격서의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임.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갈등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미·중간대립은 동아시아에서 동북아, 동중국해, 타이완해협,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의 이익에 상충되며 지역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임. 이는 중국의 확대전략이 타이완 통일을 위한 전략으로 그 국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는 것임*

#### (1)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갈등

- ◆ 이 지역 갈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아있는 냉전적 갈등과 포스트 냉전 시대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남. 이는 북한, 중국, 소련의 관계와 한국, 미국, 일본의 대립 구도에서 탈냉전 이후 중국, 러시아와 수교한 국가 간 관계의 상호의존성에 의해 그 이해관계가 복잡함.
  - ※ 즉, 남북한의 문제가 주변 4강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도 이와 같은데, 이 지역에서 미·중 갈등은 진영과 동맹과 협력적인 국가 간의 경쟁이 미·중 간 갈등으로 연계되고 여기에 남북한 복잡한 현실과 외교상 이상적 대외관계 추구하고 실제적 남북한 대립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음.
- ◆ 이 지역에서 미·중간 직접적 대립이 나타나기에는 주변 강대국들과의 동맹이나 협력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한국전쟁과 같은 대규모 물리적 갈등은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동맹국의 이중외교구조를 활용한 갈등의 조장 등을 통한 방법으로 미·중 갈등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구조에서 남북한 관계는 강대국이 동북아 세력균형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봄.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국제관계에서의 남북한 관계와 남북한 당사국 관계에서의 요소를 정확하게 분리하여 남북한 관계를 한반도 국제관계 변화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본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굳건하게 유지하며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개선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일부 동남아의 필리핀 정부의 최근 전략과도 유사하다고 보임. 즉, 일본은 자국의 전체적 국력에 도움이 되는 경우 미국의 동맹 구조를 활용하지만, 지역안보를 위해서는 중국과 협상할 수 있는 문을 열고 놓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 동중국해 갈등과 중·일 관계

◆ 중국 동해함대의 주요 활동무대는 결국 한국, 일본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의 가장 큰 갈등은 해양영토와 중·일 간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문제임. 이는 미국과 협력하는 일본의 전략과 중국의 해양전략이 대치되는 지역으로 간접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고 있는 해양접전이 라고 할 수 있음.

※ 일본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굳건하게 유지하며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개선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일부 동남아의 필리핀 정부의 최근 전략과도 유사하다고 보임. 즉, 일본은 자국의 전체적 국력에 도움이 되는 경우 미국의 동맹구조를 활용하지만, 지역안보를 위해서는 중국과 협상할 수 있는 문을 열고 놓고 있다고 볼 수 있음.

(3) 타이완해협

◆ 중국대륙 공산당과 꾸준히 대립하던 국민당의 시대가 장징궈(蔣經國)의 서거로 타이완은 천천히 타이완 본토화 국민당과 민진당의 시대로 접어든데, 역사적으로 미국과 협력하던 타이완 본토 국민당은 현재 중국 공산당과 교류를 확대하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던 민진당은 결국 미국과의 관계 및 동남아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대중국 공산당에 대립하며 자체의 안보와 국제정치 아젠다인 ‘타이완 독립’을 갈망하는 상황임.

◆ 과거, 국민당과의 관계만을 선회하던 미국 정부도 타이완(중화민국)과 미국의 역사적 관계를 중시하는 동시에 집권당인 민진당을 지지하며 중국을 자극하거나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임. 즉, 미국 정부의 국공내전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에 대한 협상과 지지내용과 현재 타이완의 국민당과 민진당에 대한 지지내용은 미국의 국익에 우선한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민주주의 가치관을 활용한 미국의 타이완 정책은 중국을 제어하거나 자극하기에 충분한 힘을 갖고 있음. 즉, 타이완 입장에서는 미·중관계

가 나뉘수록 미국과 일본 및 동남아국가와의 연대를 통해 자국의 생존공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임.

※ 과거, 국민당 정부시기 국민당 주석 마잉주(馬英九)와 중국 공산당과의 교류 확대는 역으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보임. 이에 미국은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정부를 국가 가치관이나 역사적 관계를 토대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4) 남중국해**

- ◆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갈등 그리고 중국과 관련국(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부르나이 등)의 갈등은 해양 주권에 대한 갈등인데, 이 지역은 동아시아의 해양 허브인 관계로 중국과 미국, 일본의 갈등이 두드러진 지역임.
- ◆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서로 경제적 의존이 깊어진 상태이지만, 동남아국가들의 민족주의로 중국과는 경제·문화적 협력을 강화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견제를 하고 있음.
- ◆ 이 지역에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은 해당 지역에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도록 견제하며 관련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도 힘쓰고 있음.
- ◆ 미국과 일본, 타이완은 해당 지역과의 유대와 교류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경제력을 동원한 협력과 개발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높이려 하고 있음.
- ◆ 해양 주권에 관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두드러지나 이미 이 지역에 해양 군사기지를 확보하고 있고 동시에 중국의 남방기지인 하이난다오(海南島) 등지와 거리상 유리한 입장에 있는 중국의 군사력도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임.
- ◆ 또한, 남중국해와 관련된 국가들이 인접국이 중국과의 과도한 마찰을 원하지 않고, 미·중 마찰에서 자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의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미·중 간 무력 대립은 시위 정도 일뿐, 지역에서의 전면전으로 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그러나 통킹만(Gulf of Tonkin) 사건과 같은 미국의 유인 도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남중국해와 관련된 국가들이 인접국이 중국과의 과도한 마찰을 원하지 않고, 미·중 마찰에서 자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의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미·중 간 무력 대립은 시위 정도 일뿐, 지역에서의 전면전으로 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그러나 통킹만(Gulf of Tonkin) 사건과 같은 미국의 유인 도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V. 미·중 관계의 미래는?

### 1. 일반적인 미·중관계에 대한 분석

◆ 현재 중·미관계를 연구하거나 분석하는 학자나 평론가의 향후 중·미관계를 보는 시각은 아래와 같음.

- 첫째, 중국 국내의 학자들이나 언론은 현재 미·중 관계의 심각성을 고려하면서 다음에 민주당 바이든(Joe Biden)이 대선에 승리하면 현재와는 다른 미·중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음. 특히, 중국 언론은 미·중 관계의 대립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공급과 과학·기술 발전에 신경을 쓰며 정치와 경제 안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화민족의 단결을 촉구하는 모습임. 그리고 미국과의 밸류체인 충돌에서 중국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관련 국가나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면 중국 내 학자나 언론도 미·중 대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중국 국민은 일부 외부 소식을 접하는 사회 엘리트 계층(공산당이 아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산당의 선전 내용을 믿고 있음. 이는 과거 ‘죽(竹)의 장막’으로 외부와 교류를 끊었던 과거 공산당 정부의 쇠국(鎖國) 역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 일부 국제상황을 이해하는 지식인들은 미·중 대립을 걱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중국정치에서 영향력은 미미하며 이들도 중국이라는 사회에서 생활하기에 단지 공산당의 합리적 변화를 바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셋째, 중국 정부의 경우는 미·중 대립 상황을 장기전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임. 즉, 미·중 대결이 갖고 올 중국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인민(국민)의 애국심을 응집할 수 있는 국내정치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강사회(小康社會)’ 완성에 대한 성과를 통해 중국 사회가 공산당 지도(영도)로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임.
- 넷째, 타이완을 포함한 한국 및 일본의 학자들은 미국 학자의 주장처럼 미·중 대립에서 중국 공산당이 어려운 상황에 들어설 것이고, 이는 미·중과 관련이 있는 국가들의 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음. 특히, 타이완의 경우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봉쇄전략에 대해 친미정책을 통해 안보를 보장받으며 새로운 경제 출구를 찾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중국은 타이완 문제를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면서 미·중 갈등 문제에서 타이완 문제에 적극적 개입을 통해 국내 정치 환경을 안정시키며 미국에 일침을 가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음.
- 다섯째, 미·중의 마찰이 오랜 기간 갈 것이고 중국이 불리할 것이라고

*미·중의 마찰이 오랜 기간 갈 것이고 중국이 불리할 것이라고 보는 판단이 대세임에 불과하고도, 중국의 적절한 대응과 인내로 결국 미국이 결과적으로 그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부류도 있음*

보는 판단이 대세임에 불과하고도, 중국의 적절한 대응과 인내로 결국 미국이 결과적으로 그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부류도 있음. 즉, 중국은 국내 정치에 중점을 두며 미국에 대응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 때문에 시간이 지나 이러한 전략이 미국에도 불리하게 나오는 단계에서 미·중 관계는 다시 미온(微溫)의 협력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것임.<sup>9)</sup>

- ◆ 현재의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며, 정부와 학자 그리고 기업계에서도 보는 내용이 다양하고, 또한 미·중 관계를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임.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전략적 분석도 있고, 중국과 대항하는 타이완의 미·중 관련 전략도 있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의 이에 관한 전략도 있음. 그리고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북한의 입장도 있음. 게다가 국제사회에는 자국과 관련된 상황으로 보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각 국가의 서로 다른 전략도 있는데, 특히 한·중 수교로 지정학적 입장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도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남북한 문제라는 현안이 있는 한국의 입장도 있음.

*현재의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전략적 분석도 있고 중국과 대항하는 타이완의 미·중 관련 전략도 있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의 이에 관한 전략도 있음. 그리고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북한의 입장도 있음. 특히 한·중 수교로 지정학적 입장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도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남북한 문제라는 현안이 있는 한국의 입장도 있음*

## 2. 개인적으로 보는 미·중관계의 미래

- ◆ 1972년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고 1979년 미·중수교가 이루어진 이후로 정권이 바뀌고 정세가 바뀔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밀월은 방향의 변화를 겪지만, 최근의 미·중관계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의 서로에 대한 근간은 큰 변화가 없었음.
- ◆ 역사적으로 보면 1980년대에 들어 미·중의 정권이 바뀌자 미·중관계는 더 긴밀해졌음. 마우쩌둥과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이루었던 외교적 성과를 이어받은 덩샤오핑은 특유의 통찰력과 친화력으로 미국, 일본, 영국의 지도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특히 미·중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음.
- ◆ 21세기초 '9·11테러'가 발생했고 당시의 미국 행정부인 부시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하게 됨. 그 사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는 다소 위축된 반면에 중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돈독해진 경제 관계를 다지며 미국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었는데, 2009년 미국의 오바마(Barack Obama) 정부는 동아시아 정세에서 미국의 입지에 대한 위기의식과 아시아의 중요성을 느끼고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미국의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음.

- ◆ 오바마 정부시기에는 기후문제, 남중국해 문제, 경제문제 등 마찰이 잦아 지자 미국은 차츰 중국에 대한 우호감을 잃어가게 되었음.
- ◆ 그러나 미·중은 수교를 기점으로 약간의 부침은 있었으나 전반적 교류는 꾸준히 증가했고 물질·인적 이동이 활발해졌음. 미·중은 과거 그랬던 것처럼 미·중 마찰과 별개로 항상 외교채널을 열고 국익을 위해 주변 정세를 상의하고 각자의 실리를 취하며 우발적으로 발생 가능한 커다란 분쟁을 피했다고 볼 수 있음. 언론에 나오는 내용으로 미·중관계가 정말로 위협한 단계에 들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음.

*미·중관계는 이미 서로 물리적 마찰을 통해 승부를 정할 단계는 넘어선 것으로 보임. 즉, 각국이 자국의 정치와 대외정치에서 적절한 이익을 보장받는 상태에서 타협하고 협력하다 다시 마찰과 협상 및 봉합을 반복하는 단계로 들어설 것으로 보임. 그러나 미·중 마찰이 제3의 국가나 지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제지역사회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임*

-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미·중관계는 이미 서로 물리적 마찰을 통해 승부를 정할 단계는 넘어선 것으로 판단됨. 즉, 각국이 자국의 정치와 대외정치에서 적절한 이익을 보장받는 상태에서 타협하고 협력하다 다시 마찰과 협상 및 봉합을 반복하는 단계로 들어설 것으로 보임. 그러나 미·중 마찰이 제3의 국가나 지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제 지역사회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기 미·중 양국은 실제적 마찰로 자국의 우방이나 협력국을 잃는 우는 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 한국 사회에서 “진보냐 보수냐 혹은 친미냐 용중(用中)이나?”라는 문제로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세력과 시민집단이 존재하는 복잡한 특징도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국인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견해는 역사적 경험, 현실적 경험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해 이해하는 관점 등에 따라 여러 의견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음. 혹은, 미·중 관계를 흑백논리로 보는 집단이나 미·중 관계를 다자간 관계로 보는 집단 그리고 한반도 남북한 문제와 연계해 중국을 보려는 집단과 한미동맹을 우리 사회의 뿌리로 보는 집단 등이 동시에 존재함.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는 미·중 관계에 대한 여러 시각이 공존하고 있음.
- 그러나 크게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라는 이분적 문제는 미·중 간 대립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그리 효과적 선택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음. 이는 한국 정부나 국민이 보는 미·중 관계는 안보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체제와 가치관의 문제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임. 중요한 미·중 관계가 결국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크지 않음. 그러나 미·중 관계 각 영역의 변화가 한국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크다고 봄.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싱가포르의 미·중 균형 외교(balanced diplomacy)나 베트남식의 실리외교(實利外交) 혹은 필리핀식의 헤징(hedging) 전략을 동시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김철범 지음, “휴전 결정 과정” 『한국전쟁과 미국』, (서울: 평민사, 2018).
- 마이클 H. 헌트 지음, 권용립·이현희 옮김, 『이데올로기와 미국 외교 글로벌 정치연구』, (부산: 산지니, 2005).
- 주재우, 『한국인을 위한 미·중관계사 6.25 한국전쟁에서 사드 갈등까지』, (서울: 경인문화사, 2017).
- 주평 지음, 이상원 옮김, 『국제관계이론과 동아시아안보』, (서울: 북코리아, 2014).
- 제임스 E. 도커티, 로버트 L. 팔츠그라프 지음, 이수형 옮김, 『미국외교 정책 사·루스벨트에서 레이건까지』, (서울: 한울, 1997).
- 최윤식 지음, “앞으로 30년, 누가 이길까?” 『앞으로 5년 미·중전쟁 시나리오』, (서울: (주)지식노마드, 2018).
- David M. Lampton, 『The Three faces of Chinese Power Might, Money, and Mind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 Robert Lawrence Kuhn, “Tiananmen and Thereafter,” 『How China’s readers think』, (Singapore, John Wiley & sons(Asia) Pte. Ltd. 2011).
- William C. Kirby, Robert S. Ross. and Gong Li, 『Normalization of U.S.-China Relations』, ASPI Austr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Harvard east Asian monographs: 2007).
- 費正清, 戈德曼著, 薛絢譯, 『費正清論中國』, (台北: 正中書局, 2004)
- 李衡東, “政治改革軟著陸-中國的憲政前景制度設計,” 于建嶸 秦暉 陳植武 等著, 『中國大呼吸』, (香港: 晨鐘書局, 2009).
- 沈志华, 『毛泽东、斯大林与朝鲜战争』, (广州: 广州人民出版社, 2003).
- 王辑思, 徐辉 主编, “美国与前苏联地区国家的关系,” 『冷战后的中国外交(1989-2000)』, (北京: 事实出版社, 2011).
- 강근형·강병철,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신아세아』 23. 2 (2016).
- 강택구·한석희, “중국의 대미인식과 대외전략 논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지역연구』 15(2), (2011),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김상기, “기रो에 선 한반도-2010년대 미·중 관계 변화와 한국의 전략,” 『한국정치학회보』 48(5), (2014), 한국정치학회.
- 김원모, “미·중 관계의 이론, 실제, 전망,” 『글로벌정치연구』 Vol. 9 No. 1 (2016),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 김재관, “시진핑 집권기 미·중 패권경쟁과 ‘중국몽’의 길,” 『글로벌정치연구』 Acta Eurasiatica. Vol. 10 No. 2 (2019), 한국유라시아학회.
- 김태완, “한반도 방정식 : 미·중관계와 한반도 평화,”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43 (2020), 제주평화연구원.
- 손병권,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대응,” 『세계지역연구논총』 25권 1호 (2007), 한국세계지역학회.
- 이성현, “미·중 갈등의 장기화 노정 가능성과 그 배경,” 『세종정책연구』2019-

10(2020), 세종연구소.

崔光寧, “韓國戰爭의 原因에 關한 研究- 美國의 對韓公約의 變動을 中心으로,” 『군사』 (20), (199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허재영,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중 경쟁: 연성균형의 지속과 변화,” 『東西研究』, 제30권 3호 (2018), 연세대학교.

주 석

- 1) 人民网, “揭秘: 斯诺从未到过延安 其妻才是真正记录人,” (2013年8月8日).
- 2) 1979년 4월 10일에 제정된 미국의 국내법으로 미국은 1978년 12월의 미·중 공동성명에 의해 1979년 1월 1일 이후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지만, 이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타이완과 문화·통상 등에 관한 비공식관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자위에 필요한 무기와 군사기술의 제공, 의 미국에 존재하는 자산에 관한 소유권 등이 규정되어 있다.
- 3) 广州日报, “中美建交始末: 卡特瞒着国会与中国进行建交谈判,” (2009年1月3日).
- 4) 손빈이 조나라를 구하기 위해 위나라와 직접적 전쟁을 하지 않고, 위나라가 출정한 상황에서 위나라를 포위하여 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려다 회군하게 하여 위나라를 구한다는 뜻으로, 때로는 상대국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 아닌 상대국이 공격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국가를 도와 상대국의 전력 약화를 가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함.
- 5) 중국은 반둥회의에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맺고 연합체를 구성해 아시아에서 미국의 세력을 몰아내려 했는데, 당시 회의에 참석한 대수의 국가가 타이완(중화민국)과 교류 중이거나 미국과 우호관계인 국가였고 중국과 수교한 나라는 6개국에 불과해 지지를 기대하긴 힘들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중국은 빼어난 외교가 저우언라이의 역량과 제3 세계 국가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으로 다수의 국가와 수교를 해나가도 1971년 이 힘을 기반으로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한다.
- 6)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공산당 보수와 진보는 사회주의 체제 유지와 개혁·개방 정책이라는 주제를 놓고 심한 토론으로 근 3년을 지낸다. 그러던 중 1992년 덩샤오핑은 천안문 사태 이후 발언권이 커진 보수파들을 견제하기 위해 88세의 노구를 이끌고 설날인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선전과 주하이 경제특구를 방문했고, 다시 한번 개혁개방을 외쳤는데,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때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다급함이 아니라 주저함이다. 국가는 이 정책이 필요하고 인민은 이것을 좋아한다. 누구든 개혁개방 정책에 반대하는 자는 바로 물러나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중국의 경제는 또 다시 고속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 7) Chinadaily, “China firmly safeguards China-US relations,” (Aug. 8th, 2020).
- 8) 中国社会科学網, “全面建成小康社会视阈中的互联网扶贫,” (2020年8月8日).
- 9) 이러한 주장은 타이완을 포함한 일부 중국 근현대사와 미·중 관계를 연구하던 중국인 학자들에서 나온다.

## ❖ 저자 약력

## ■ 김진호

단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홍콩 주해(珠海)대학 문사연구소에서 중국 근현대사(홍콩사)로 석사학위를 받고, 마카오 동아대학(현 마카오대학)에서 MMS(Marketing) 과정을 수료했고, 1998년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국제관계(동북아국제관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음. 대만 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중심의 방문학자, 홍콩 주해대학 방문교수, 중국 심천(선전)대학 방문학자를 거쳤고, 현재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있음. 주요 논문으로, “중국 해양 회색지대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한국동북아논총』, 2020), “중국의 일국양제와 홍콩의 민주화: 중화 애국심과 홍콩 본토화”(『현대중국연구』, 2020), “‘코로나19’ 발병과 방역을 통해 본 중국 국내의 정치: 언론 내용을 중심으로”(『평화학연구』, 2020), “시진핑 성장 배경과 정치 리더십?-개인적 성향과 시진핑시대를 중심으로-”(『한중사회과학연구』, 2020) 등이 있음.

기획 및 감수: 한동균 (제주평화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편집: 장훈필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jpi@jpi.or.kr](mailto:jpi@jpi.or.kr) **http://**[www.jpi.or.kr](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